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6년 4월 1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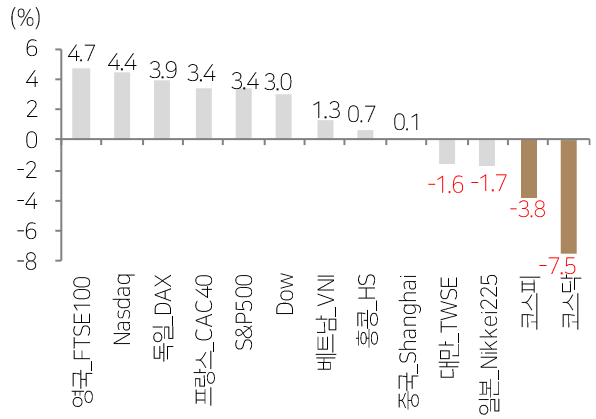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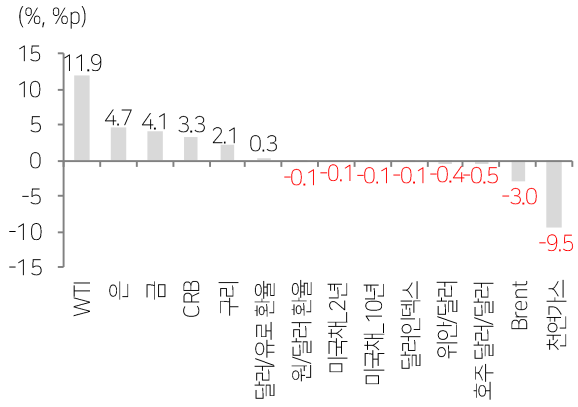
Ⅰ.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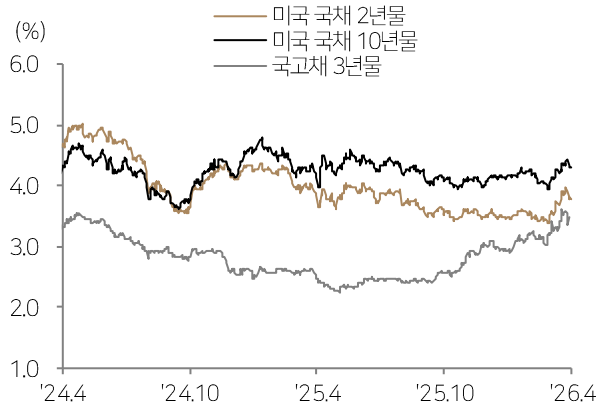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3/27일 대비 4/2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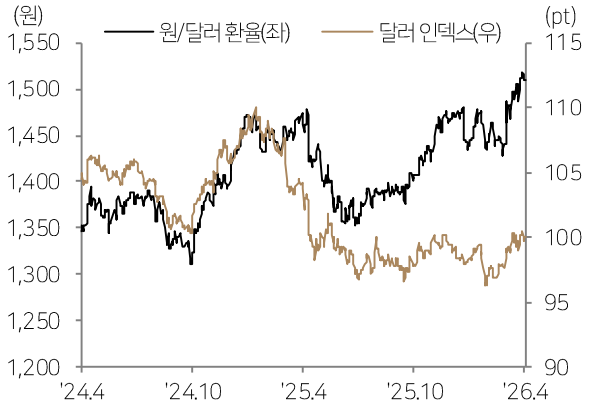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3/27일 대비 4/2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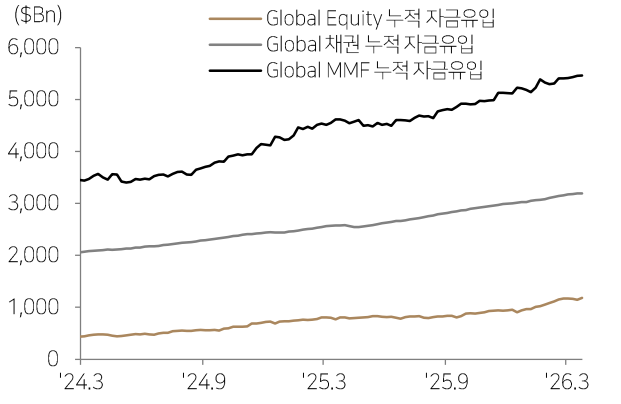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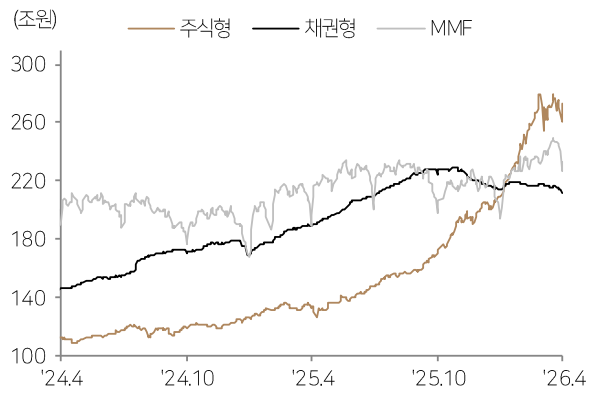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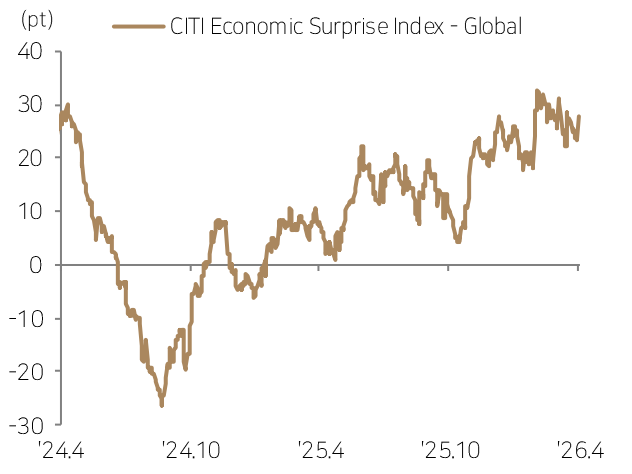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매파적이었던 3월 FOMC와 전쟁 상황의 지속은 발표되는 물가 지표의 중요성을 높게 만들고 있음. 지난 달 확인된 미국의 2월 물가지표들 중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등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반영되기 이전이었음에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 이미 유가를 반영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인지되어 있지만, 그 강도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
- 같은 맥락에서 10일 발표되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내 기대인플레이션 항목도 유의할 소재. 3월 초반의 조사치로 발표한 1년후 기대 인플레이션의 3월 잠정치는 3.4%였으나, 월말까지 집계된 확정치는 3.8%로 급등.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4월 말 FOMC와 관련된 경계심으로 연결될 수 있음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4-06	미국	3월 ISM 서비스업 지수	Index	54.9	56.1
2026-04-08	유로존	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3.1	-2.1
2026-04-09	미국	2월 PCE 물가지수	%yoy	2.8	2.8
2026-04-09	미국	2월 근원 PCE 물가지수	%yoy	2.9	3.1
2026-04-09	미국	4분기(3차) GDP 연간화	%qoq	0.7	0.7
2026-04-10	일본	3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3	2.0
2026-04-10	중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0.5	-0.9
2026-04-10	중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2	1.3
2026-04-10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4	2.4
2026-04-10	미국	3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yoy	2.7	2.5
2026-04-10	미국	4월(잠정)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Index	52.0	53.3
2026-04-10	미국	2월 제조업 수주	%mom	-0.2	0.1
2026-04-10	미국	2월 내구재 주문	%mom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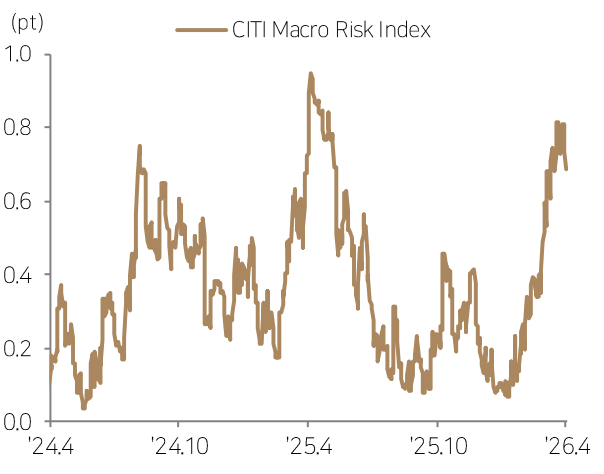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4/7	한국	상	삼성전자 실적 발표(잠정)	▪ 삼성전자 26년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 확정 실적 발표는 4/30으로 예정되어 있음.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114.9조원, 영업이익 37.2조원, 순이익 30.1조원으로 형성 중(4/3, 3M) ▪ 당사 담당자는 1분기 영업이익 40.3조원 기준 컨센 대비 +10% 정도 높게 전망 중. 기존 예상을 상회하는 ASP 상승세 확인과 함께 2분기 및 26년 실적 컨센서스 재상향 가능성 높다고 판단
4/10	한국	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 25년 5월 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인하한 이후 6회 연속 동결. 지난 2월 회의에서 이창용 총재는 현재를 동결기로 직접 정의하며 금리 상방 압력을 제한하고 싶다는 의중을 피력.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 급증. 전쟁 장기화에 대한 한은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 4월 20일 임기를 마치는 이창용 총재의 후임으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지명. 그간 후보자의 발언과 연구에 따르면 '실용적 매파'로 평가. 신 후보자는 최근 1) 중동 문제로 인해 금리인상 역시 불확실, 2) 추경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 3) 매파·비둘기파와 관계없이 통화정책은 유연하게 대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시장 예상보다는 중립적인 스탠스 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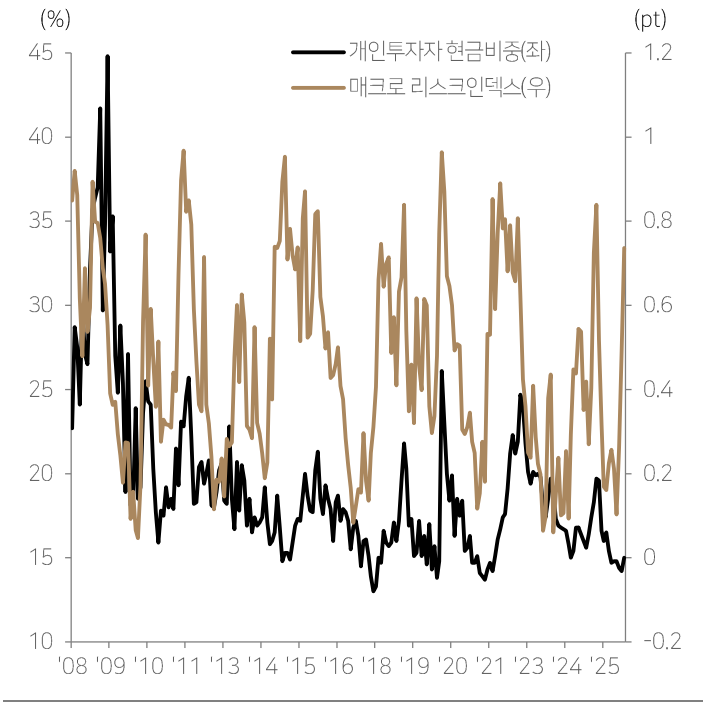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3/27~04/02) 증시 동향	▪ KOSPI(-3.8%), KOSDAQ(-7.5%) 하락. KOSPI는 소매(유통)(+3.6%)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운송(-10.0%), 화학(-9.0%), 조선(-7.1%) 업종 하락. 주 초반 1) 미국 지상군 투입 준비, 2) 후티 반군의 전쟁 참여, 3) 에너지 시설 공격 소식 전해지며 코스피 하락 출발. 에너지 공급 체계 붕괴가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반도체 업종 약세, 지수 하방 압력. 주중 미국과 이란이 종전 의사를 밝히자 지수 8% 넘게 상승하는 등 투자심리 회복됐으나, 2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확전 발언이 전해지며 투자심리 급냉, 매도 사이드카 발동하며 코스피 5,200pt대 마감 ▪ DOW(+3.0%), S&P500(+3.4%), NASDAQ(+4.4%) 상승. 주 초반 확전 우려 심화, 위험회피 심리 발동하며 하락 출발. 주중 낙폭 과대 인식 속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종전 의사를 보이자 터보퀀트 이슈로 하락했던 기술주 위주 저가 매수 유입되며 상승 전환. 트럼프의 강경 발언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발언 이어지며 양측 입장에 따라 장중 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는 등 경계 심리도 상존
차주 (04/06~04/10) 증시 전망	▪ 여전히 불확실성 상황 지속 중. 휴전 혹은 종전 조건에 대한 언급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기대를 가지게 만들지만, 전일 트럼프의 추가 타격 발언처럼 예상하기 힘든 움직임들이 거듭되며 단시일 내 국면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쉽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더불어 고유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금리 및 이익에 대한 기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은 강화될 수 있음. 여전히 방향성에 대한 베팅보다는 낮은 가격대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 ▪ 국내 증시는 실적 기대가 고조될 수 있는 국면. 3월 수출도 사상 최대치 호조였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 기대도 높음. 따라서 충격 발생 시 5,000pt 초반 낮은 레벨에서의 진입은 생각해 볼 만한 전략. 그러나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거나, 포지션 노출을 크게 늘리는 것은 지양. 변동성 국면에서 시장 민감도가 적은 방어주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으나, 가격 메리트 발생 시 IT 섹터의 비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 수급 이슈를 향유할 수 있는 대체 전력(원전, 신재생, 인프라)에도 관심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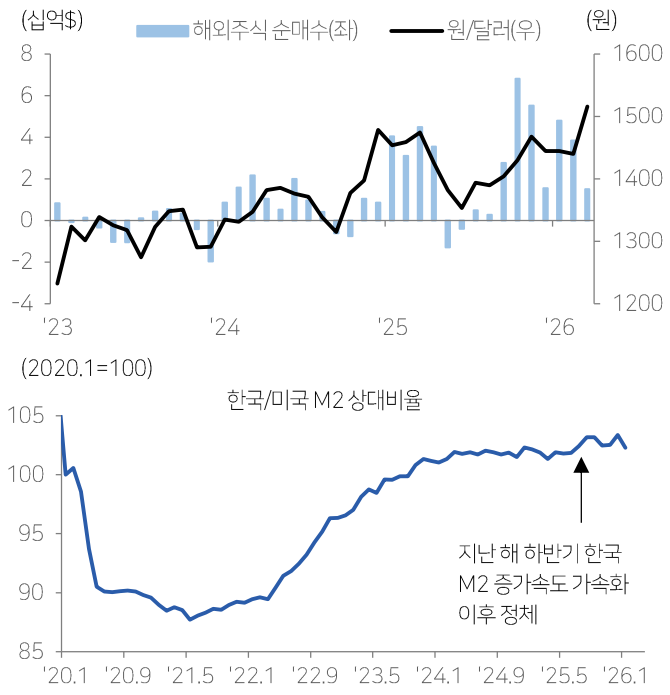
혼란스러운 3월을 겪으면서도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은 바닥 수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현금의 세 자산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시기에 투자자들은 1차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리게 됨. 불확실성 확대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면서 금리와 주식에 모두 충격을 줄 수 있기에 일단은 현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후 배분 과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반영하는 불안한 상황이라면 현금 > 채권 > 주식 순서로 자산 배분의 방점이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
- 3월은 전쟁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심리가 형성됐던 구간. 그러나 예상 외로 이번 국면에서는 리스크 지표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자산 배분 상 현금 비중 확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번 상황이 단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자들도 소위 'look through'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리스크 지표의 빠른 안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일 수도 있음

가파른 환율의 상승, 기존 상승 부담 요인들의 재부각이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에 연동된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지정학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환율 부담도 높아지고 있음. 연말 1,480원대 후반부터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했고, 한국은행도 환율 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 결과적으로 연초 환율은 1,420원대까지 진입했었으나 3월 전쟁 발발과 함께 1,500원대 환율 수준에 진입
- 최근 수년 간 환율은 펀더멘털 요인에 대한 반영보다 유동성 흐름에 민감하게 움직인 경향이 있음. 이런 관점에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나 한국과 미국의 상대 M2 비율 등을 보면, 기존에 비해 안정화되어 있음이 확인. 국내 주식시장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도 있지만, 시장 전체 외국인 지분율 관점에서는 환약세를 유발할 만큼 지분 감소가 나타난 것도 아님
- 결국 현재 원화 변동성은 구조적 문제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현상적 반응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양호한 수출 현황, 이어지고 있는 환율 안정화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하면 상황 개선 시 환율은 빠르게 안정화 될 여지를 가지고 있음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